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 장현정†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5월 28일 접수: 2018년 6월 25일 수정: 2018년 6월 27일 채택)

Influence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Jeong-Hwa Lee* · Hyun-Jung Ja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 730, Gangdong-ro, Sandong-myeon,
Gumi-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Received May 28, 2018; Revised June 25, 2018; Accepted June 27, 2018)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G시의 3개학과 간호보건계열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F=9.856, p<.001$) 및 진로성숙도($F=6.005, p=.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점은 진로성숙도($F=2.755, p=.042$) 및 취업스트레스($F=3.503, p=.016$)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토익점수는 전공만족도($F=4.514, p=.004$)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r=-.314, p<.001$)와 진로성숙도($r=-.514, p<.001$)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beta=-.125, p=.007$), 진로성숙도($\beta=-.45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학과별 특성에 맞는 전공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진로지도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간호보건계열 대학생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examin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410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from 3 schools of G-city from September 26 to October 31, 2017.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ngah74@hanmail.net)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F=9.856, p<.001$) and career maturity ($F=6.005, p=.001$) according to major choice motives. The student GPAs we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areer maturity ($F=2.755, p=.042$) and job-seeking stress ($F=3.503, p=.016$). In addition, the TOEIC sco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jor satisfaction ($F=4.514, p=.004$). Job-seeking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r=-.314, p<.001$) and career maturity ($r=-.514, p<.001$). The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were in the order of major satisfaction ($\beta=-.125, p=.007$) and career maturity ($\beta=-.459, p<.001$). Based on the results, two proposals are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jor guidance program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from the lower grades and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career guidance accordingly.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Job-Seeking Stress,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는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들이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보다 0.5%p 하락한 10.7%이긴 하나 평균 실업률 4.1%보다 2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청년 실업률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아직 없으며 취업은 개인능력의 척도로 취급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과제이나[2], 대부분의 대입 준비생들은 고교시절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여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여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3].

전공만족도는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4].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의미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그러나 전공 선택 시 개인의 요구에 의한 능동적 선택보다는 졸업 후의 진로나 취업 등의 사회적 요구에만 맞춰진 수동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긴 갈등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 문제에 대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하는 원인이 된다[6].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이 이루어질 것이나[5][7] 전공불만족은 학교생활의 전반적 부적응을 초래하여 대학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인 진로성숙도를 방해할 수 있다[8].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 결정성과 자기 자신의 이해에 관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8].

진로성숙도는 자아의 이해와 직업적성에 부합하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 또는 발달과업의 수행 정도이다[9]. 진로계획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10].

취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는 취업실패 반복이나 실업의 장기화를 통해 나타나는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의 '미취업 스트레스 증후군'이다[11].

취업준비를 앞둔 대학생들은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의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12]. 취업 준비과정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기통제의 자극과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12].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3]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계열의 경우 진로나 취업확정이 타학과에 비해 분명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더 가중되므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14]. 이렇듯, 간호보건계열도 취업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G시에 소재한 간호보건계열 3개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G*Power 3.1.9.2에 따라 대상자수 선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ES) .15, 검정력($1-\beta$) .95일 때 최소 표본수가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자발적 연구참여에 동의한 430명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 중, 응답에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총 410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만족도

하혜숙[15]의 학과만족도 도구를 참고한 이미라[16]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공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개인차원'에서의 만족도 6문

항, '사회차원'에서의 만족도 7문항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미라[16]의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다.

2.3.2 진로성숙도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김설아[17]가 한국 실정에 맞게 상담용 척도(Counselling form B-I)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진로확정도' 8문항, '진로독립도' 8문항, '진로타협도' 6문항, '직업선택태도' 5문항, '진로관여도' 3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신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설아[17]의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2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로는 코넬 대학이 제작한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 CMI)을 기반으로 개발된 황성원[1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강유리[19]가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유리[19]의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확인을 위해 사

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3)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보건계열에서는 성별 ($\chi^2=35.397$, $p<.001$), 평균학점($\chi^2=13.778$, $p=.032$) 및 토익점수($\chi^2=113.25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학생 64명(15.6%), 여학생 346명(84.4%)이었고, 학년별 분포로는 3학년 188명(45.9%), 4학년이 222명(54.1%)이었으며 조사대상의 264명(64.4%)이 간호학과로 가

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학과의 전공 선택동기로는 '학과 인기도나 취업률을 고려해서'가 132명(32.2%),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122명(29.8%)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본인의 평균학점에 대해서는 '3.0이상~3.5미만'이 180명(43.9%), '3.5이상~4.0미만'이 137명(33.4%)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토익점수에 대해서는 '500점이상~700점미만'이 195명(47.6%), '500점미만'이 116명(28.3%)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학과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에서는 전공만족도만이 학과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가 치위생학과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4.970$, $p=.007$)(Table 2). 대상자와 연구도구가 상이하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이지영[20]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보건계열 7개 학과를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10)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Physical therapy	Dental hygiene	total	χ^2	p
		n(%)	n(%)	n(%)	n(%)		
Gender	male	37(9.0)	27(6.6)	0(0.0)	64(15.6)	35.397	<.001***
	female	227(55.4)	50(12.2)	69(16.8)	346(84.4)		
Grade	3rd	123(30.0)	37(9.0)	28(6.8)	188(45.9)	.981	.612
	4th	141(34.4)	40(9.8)	41(10.0)	222(54.1)		
Religion	yes	184(44.9)	48(11.7)	44(10.7)	276(67.3)	1.942	.379
	no	80(19.5)	29(7.1)	25(6.1)	134(32.7)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and interesting	80(19.5)	28(6.8)	14(3.4)	122(29.8)	11.733	.068
	grades	31(7.6)	14(3.4)	16(3.9)	61(14.9)		
	employment	85(20.7)	22(5.4)	25(6.1)	132(32.2)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68(16.6)	13(3.2)	14(3.4)	95(23.2)		
Grade point average	under 3.0	35(8.5)	10(2.4)	19(4.6)	64(15.6)	13.778	.032*
	3.0 or more-under 3.5	110(26.8)	38(9.3)	32(7.8)	180(43.9)		
	3.5 or more-under 4.0	99(24.1)	23(5.6)	15(3.7)	137(33.4)		
	4.0 or more	20(4.9)	6(1.5)	3(0.7)	29(7.1)		
TOEIC score	under 500	31(7.6)	40(9.8)	45(11.0)	116(28.3)	113.257	<.001***
	500 or more-under 700	143(34.9)	33(8.0)	19(4.6)	195(47.6)		
	700 or more-under 900	85(20.7)	4(1.0)	5(1.2)	94(22.9)		
	900 or more	5(1.2)	0(0.0)	0(0.0)	5(1.2)		

* $p<.05$, *** $p<.001$

Table 2.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major (N=410)

Variables	Nursing	Physical therapy	Dental hygiene	F	p
	Mean±SD	Mean±SD	Mean±SD		
Major satisfaction	3.78±.57	3.63±.55	3.45±.63	4,970	.007**
Career maturity	3.28±.37	3.23±.32	3.34±.35	2,519	.082
Job-seeking stress	2.17±.70	2.17±.74	2.08±.65	1,193	.304

** p<.01

covariate: gender, grade point average, TOEIC score

Table 3.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job see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10)

Variable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Job-seeking stress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7(9.0)			64(15.6)			2.23±.82	.973	
	female	227(55.4)	27(6.6)	0(0.0)	50(12.2)	35.397	.001***	69(16.8)	(.331)	
Grade	3rd	123(30.0)			188(45.9)			2.10±.65	-1.369	
	4th	141(34.4)	37(9.0)	28(6.8)	40(9.8)	.981	.612	41(10.0)	(.172)	
Religion	yes	184(44.9)			276(67.3)			2.18±.71	-.587	
	no	80(19.5)	48(11.7)	44(10.7)	29(7.1)	1.942	.379	25(6.1)	(.557)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and interesting grades	80(19.5)			122(29.8)			2.08±.67		
	employment	31(7.6)			14(3.4)			16(3.9)	0.620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85(20.7)	28(6.8)	14(3.4)	22(5.4)	11.733	.068	25(6.1)	(.602)	
Grade point average	under 3.0	35(8.5)			64(15.6)			2.22±.61		
	3.0 or more-under 3.5	110(26.8)			38(9.3)			32(7.8)	3.503*	
	3.5 or more-under 4.0	99(24.1)	10(2.4)	19(4.6)	23(5.6)	13.778	.032*	15(3.7)	(.016)	a,b,c,d
	4.0 or more	20(4.9)			6(1.5)			3(0.7)		
TOEIC score	under 500	31(7.6)			116(28.3)			2.18±.64		
	500 or more-under 700	143(34.9)			33(8.0)			19(4.6)	2.579	
	700 or more-under 900	85(20.7)	40(9.8)	45(11.0)	4(1.0)	113.257	.001***	5(1.2)	(.053)	
	900 or more	5(1.2)			0(0.0)		0(0.0)			

* p<.05, ** p<.01, *** p<.001

사한 결과, 학과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중 간호학과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진로선택 시 취업률도 고려한 결과로 안정적인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는 Table 3과 같다.

첫 째,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선택 동기 및 토익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선택 동기에서는 ‘적성 및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성적에 맞춰서’, ‘학과인기

도나 취업률 때문에’, ‘부모 및 교사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9.856, p<.001), 또한 토익점수에서는 ‘700점 이상~900점미만’의 대상자가 ‘500점 미만’의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4.514, p=.004).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21]은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주도적으로 본인의 주관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적극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학업이나 스펙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 째, 진로성숙도에서는 학년, 전공선택 동기, 평균학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년에 있어서는 4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 김남홍[2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이 좀 더 확실해 질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공선택 동기에서는 ‘적성 및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성적에 맞춰서’, ‘학과 인기도나 취업률 때문에’, ‘부모 및 교사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6.005, p=.001$). 학점에서는 ‘4.0이상’인 경우가 ‘3.0미만’인 경우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755, p=.042$).

셋 째, 취업스트레스는 학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4.0미만’인 경우가 ‘4.0이상’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503, p=.016$).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명희 등[2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은 취업이 학점과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여 학점이 향상될수록 취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김철아[17]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4학년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취업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3학년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시기를 달리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24]은 취업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학점, 전공이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업준비와 관련이 있는 학점 외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토익(공인영어성적)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토익이 학점보다는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부담감은 다소 낮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부 보건계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미흡하므로 학과 및 계열을 달리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3.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r=-.314, p<.001$) 및 진로성숙도($r=-.514,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4), 이는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라[1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문에 매진할 때 취업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양의 상관관계($r=.401, p<.001$)로 나타났다(Table 5).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측정 연구도구가 상이하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선행연구[25-28]에서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여 진로를 계획, 선택, 결정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용준과 박준성[7]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job-seeking stress

(N=410)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2	F
Grades	-.037	.036	-.043	-1.018	.309		
Major satisfaction	-.149	.055	-.125	-2.721	.007	.275	52.628***
Career maturity	-.896	.090	-.459	-9.948	.000		

*** $p<.001$

Table 5. Rela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job seeking stress (N=410)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Job 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1		
Career maturity	.401***	1	
Job seeking stress	-.314***	-.514***	1

*** $p < .001$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신입생 때부터 전공선택에 대한 계획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인다면 대학생 활 적응에 도움이 되며 취업스트레스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학점과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를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Durbin Watson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공차 한계는 0.834~0.983, 분산팽창인자는 1.018~1.200으로 분포하여 각각 정상범위인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았다.

Durbin Watson 통계량은 2.00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52.628$, $p < .001$).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 = -.125$, $p = .007$), 진로성숙도($\beta = -.459$, $p < .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5%였다(Table 5).

심선행[29]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활적응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점 및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학과별 특성에 맞는 전공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제언으로는 일부학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계열 및 학과의 확대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조사시기가 하반기에 실시되어 4학년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을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언한다.

References

1.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Employment trends
2. J. H. Lee, S. T.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 133-146, (2011).
3. E. J. Han, B. M. Hwang, "A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university major and vocational activities in jeon-nam area", *The Journal*

- of Humanities and Society Science*, Vol.7, No.4, pp. 1099-1114, (2016).
4.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f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2004).
 5. J. Y. Kim, J. Y. Kang, M. R. Jeon, B. Y. Choi, E. S. Jeong,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the campuslif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tudents Guidance Research*, Vol.17, pp. 155-205, (1999).
 6. A. S. Park, H. K. Kim,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 511-519, (2016).
 7. Y. J. So, J. S.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6, No.4, pp. 23-44, (2016).
 8. Y. J. Han, J. H.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aserch*, Vol.19, No.2, pp. 76-92, (2013).
 9. D. Y. Lee, H. J. Park, S. W. Lee, G. H. Jung,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areer maturity scale for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8, No.2, pp. 115-147, (2004).
 10. M. J. Cho,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The Study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Vol.5, No.2, pp. 47-60, (2010).
 11. J. H. Se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ir university life*, Dong-A University, (2012).
 12. M. J. Park, J. H. Kim, M. S.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1, pp. 417-435, (2009).
 13. G. Y. Lee, T. W. Choi, Y. S. Lee, "Stress effects on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6, No.2, pp. 197-2019, (2015).
 14. Y. S. Oh, E. H. Oh, "A qualitative study on job-seek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healthcar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4, No.1, pp. 25-36, (2013).
 15.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16. M. R. Lee,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job-seeking stres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17. S. A. Kim, *Dance of the major college career maturity, the impact on job stress*, Catholic University, (2012).
 18.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Dong-A University, (1998).
 19.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Dankook University, (2006).
 20. J.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tabilit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majoring in nursing and health science", *The Korea Journal od stress Research*, Vol.24, No.4, pp. 269-276, (2016).
 21. M. H. Yang, M. J. Park,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and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 No.2, pp. 137-156, (2010).
22. M. H. Kim, *The concern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nNam University, (2001).
 23. M. H. Choe, et al,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 122-131, (2015).
 24. Y. H. Cho, B. C. Kim, B. J. Kim,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tial factors on employmen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6, No.2, pp. 437-462, (2008).
 25. E. J. Kim, K. W. Choi,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 System*, Vol.19, No.2, pp. 231-239, (2012).
 26. J. M. Lee, C. Y. Park,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3, No.2, pp. 333-342, (2012).
 27. S. M. Park,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ir job-seek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yungsoong University, (2013).
 28. C. J. Lee,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among students of health care and social work", *Social science studies*, Vol.38, No.3, pp. 319-339, (2014).
 29.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2, No.3, pp. 217-225, (2012).